

SK, 중국 · 유럽 화학사업 도약의 해

2004년 매출액 53조원 목표 ... 용제 · 윤활유 · LIPB로 핵심역량 확보

SK그룹이 SK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영환경 속에서도 핵심 주력사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4년 매출액과 투자규모를 한단계 높여 잡았다.

SK그룹은 2004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라는 점을 감안해 매출액은 2003년보다 6% 증가한 53조원, 투자규모는 9% 증가한 3조600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고 1월5일 발표했다. 세전이익은 2003년보다 317% 늘어난 5조원을 목표로 했다.

SK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면서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 · 화학 사업 부문에서는 제2윤활유 공장 건설, 울산 신항만 건설에 따른 원유 하역시설 투자,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양산공장 건설 등 사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것을 보인다.

또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강력한 선도기업만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차세대 정보통신 등 기간시설망 확충과 위성 DMB 사업, 홈네트워킹 · 무선인터넷 관련 사업 등에 투자를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사업전략 수립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던 중국 사업도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2003년까지 에너지 · 화학 사업을 주력으로 한 SK차이나와 정보통신 사업을 추진하는 SK텔레콤차이나를 통해 양대 주력사업의 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하이(上海)의약개발연구소 등 생명과학 사업의 진출기반을 다진 SK는 2004년부터 아스팔트, 용제, 윤활유, LPG, 가공필름,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등 핵심 역량을 보유한 사업 위주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SK케미칼의 폴란드 공장을 준공해 현재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포진된 해외 거점을 유럽으로 확대하게 된다. 특히, SK케미칼 폴란드 공장은 SK그룹 최초의 유럽 생산기지 확보라는 점에서 앞으로 SK의 에너지 · 화학 사업의 유럽 지역 진출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SK는 2004년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강화와 핵심 사업역량 집중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경영, 윤리경영의 정착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SK가 새로운 개념의 지배구조로 천명한 “브랜드와 기업문화를 공유하는 독립기업의 네트워크”를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06>